

■ 세 자녀와 10년째 '교환일기' 쓰는 주부 성진숙씨

“일기는 마음을 주고 받는 통로”

“요즘 우리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시간이 나면 아이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 꾸중이 심했던 담임교사 때문에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자 딸을 달래기 위해 '교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쪽지·e메일·휴대전화 문자 총동원

“시시콜콜한 일까지 다 털어놓아요”

고 있는 성진숙(여·42·광주시 북구 신안동)씨는 그러나 자녀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걱정해 본 일이 없다.

해 나갔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성씨는 아이들이 힘들어 할 때마다 “사랑해, 널 믿는다” “힘내, 잘했어” 등 따뜻한 말들로 위로했고, 일기에 적은 내용을 가지고 혼내지 않았다.

엄마께 막상 이렇게 쓸려고 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교환일기 저 별로 내키지 않아요. 쓸 이야기도 없고 일기가 저에게 주었던 건 스트레스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딸 엄마도 나처럼 그 나이 때는 사춘기를 겪었던다. 그때는 내가 세상에서 보장되었는 존재처럼 느껴진 적도 있었어.

( 2002년 7월 21일, 큰딸과의 '교환일기' 중 )

기를 쓴다”며 “내용은 주로 학교 수업 마치고 친구들이랑 놀다 오고 싶다, 태권도 배우고 싶다 등 엄마를 조르는 내용이 많다”고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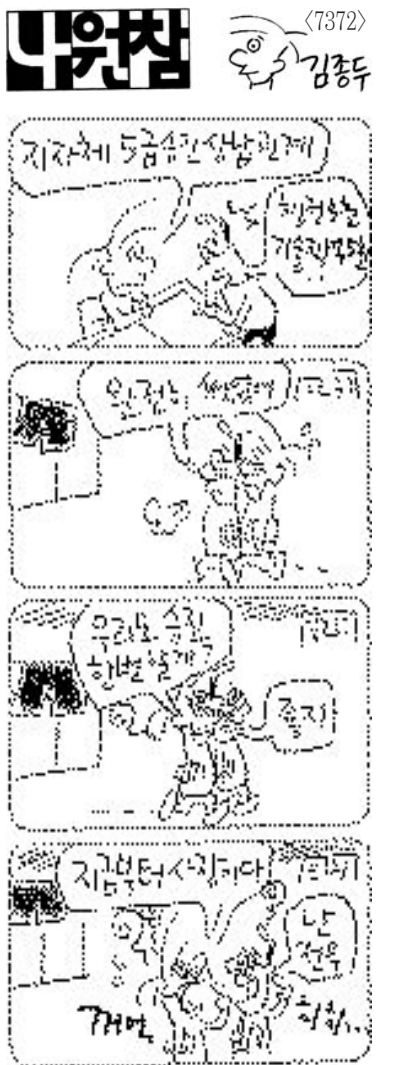
히려 더 좋은 것 같다”며 교환일기의 장점을 꼽았다. 그녀는 또 “아이들이 지금껏 말했던 것 한 번 부리지 않고 별 탈 없이 밝고 명랑하게 지내는 데는 ‘교환일기’가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며 “훗날 아이들에게 엄마와 함께 일기를 통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오



성진숙씨가 학교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막내딸 벨리나(13·동운초 6)와 '교환일기'를 보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성씨 가족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충분히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종종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들이 돌도 없는 추위거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씨는 이번 겨울방학에 아이들과 '교환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형식적인 일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고민을 털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기가 되도록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부모의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hamber of Commerce) services, including DS Real Estate, KCC Real Estate, and KCC Insurance.

‘발바리’ 또 여중생 성폭행

북구 생동동 야산서

광주지역에서 또다시 ‘발바리’에 의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생동동 생동마을 인근 야산에서 40~50대 남성이 광주 모 여중 3년 A(16)양을 성폭행 한 뒤 달아났다.

와 달라”며 A양을 유인한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서구 등지에서 발생한 4~5건의 ‘발바리 사건’ 범행 수법과 비슷한 점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12월 첫 휴일 ‘겨울비’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첫 휴일엔 촉촉한 겨울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후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며 “아침 기온이 영하 5도~영상 3도로 출렁지만 낮기온은 8~12도까지 오르겠다”고 밝혔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아 휴일 아침 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지만 낮 기온은 6~9도에 그치면서 한낮에도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과 휴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해안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Weather forecast for December 1st (Wednesday, December 22nd). Includes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e.g., -1~11C, 2~10C) and a weather map of Korea.

이런 파렴치한 사내가...

퇴폐업소서 만난 내연녀 안 만나주자 여중생 딸에게 “네 엄마는...” 비방 글

옛 애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악의적인 글을 게재한 30대가 경찰에 전과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9월15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모 PC 게임방에서 전에 사귀던 'K(여·46)씨가 퇴폐업소에서 일한다'는 내용의 글을 두 차례에 걸쳐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가 남긴 글에는 'K의 딸(15)은 사모아. 엄마는 너를 키우려고 퇴폐업소에서 일한다'는 내용과 함께 K씨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딸의 학교 명 등이 기재돼 있었다.



“에이즈 예방합시다” 광주시 서구보건소는 ‘제20회 세계 에이즈의 날’(12월1일)을 맞아 지난달 30일 지하철 상무역에서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갖고 시민들에게 콘돔 1천 개와 홍보물을 나눠줬다.

“구정질의로 명예훼손했다”

광주 남구보건소장, 구의원 고소

광주시 남구보건소 박모 소장은 최근 “지난해 4월 발생한 보건소 직원 자살 사건은 이미 사법기관의 수사가 끝났는데도 구의원이 ‘소장인 내가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상납하도록 해 직원들이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발표해 명예를 훼손

했다”며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남구의회 신모 의원은 앞서 26일 구정질의에서 “보건소 자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관행적으로 상납을 요구했다는 유족의 진정서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었다.

박 소장은 그러나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됐고 ▲상속자인 부인이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퇴직연금과 유족보상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정정활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근 농협회장 징역 5년형 확정

농협중앙회 사육을 매각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수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마트 부지 942㎡(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에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법원은 “농협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다”며 “농협법에 따라 농림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농협 운영 전반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감독·지도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고객 계좌정보 누설

농협 여직원 벌금형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정보를 누설한 농협 여직원에게 벌금이 부과됐다고 알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손금주 판사는 지난달 30일 고객의 서류상 동의 등을 받지 않고 계좌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벌교농협 직원 김경희(여·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24일 벌교농협 사무실에서 직원 교류 농협 통합전산망에 접속, 고객 박모씨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을 17차례에 걸쳐 열람하고, 이를 출력해 자신의 남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휴대전화 폭발 사망’ 거짓 증장비에 치여 사망 허위신고 동료 자백

지난달 28일 충북 청원군의 한 체석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굴착기 기사 서모(33)씨는 당초 추정됐던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이 아니라 동료가 몰던 증장비에 치여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서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동료 증장비 기사 권모(58)씨를 긴급체포해 용의점을 추궁한 끝에 “후진을 봐주던 서씨를 미처 못보고 유압드릴 증장비를 몰다 서씨를 치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서씨의 셔츠가 불에 타고 셔츠 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 배터리가 녹아내린 것은 사고 당시 권씨가 몰던 증장비가 서씨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외부 충격에 의한 ‘심장과 폐 파열’ 등의 장기 손상”으로 서씨가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와 서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폭발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전문가 소견 등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씨의 용의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밥 안쳐려준다’ 15층서 밥술 던져

광주 북부경찰은 고층 아파트에서 전기 압력밥솥을 던져 차량 앞문 유리창을 깨 김모(59·광주시 남구 백운동)씨를 재물 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30분께 북구 두암동 동거리 이모(53)씨의 아파트 15층 발코니에서 전기 압력밥솥을 창문 밖으로 던져 지상 1층에 주차해놓은 정모(여·55)씨의 선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파손했다는 것. 김씨는 전날 동거녀와 경제적인 문제로 멀다툼을 벌였는데, 경찰에서 “일 보러 나가려는데, 아침 밥상을 차려주지 않아 화가 났었다”고 진술.